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전국인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권 1:18)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서 1:21)

발행인: 김성관 목사 | 발행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 02-552-8200 | © 2003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 편집인: 노광현 | 편집국장: 이형수

김성관 목사 설교

선택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 9:27~28)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우리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두 가지의 예정된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불가피한 것으로, 죽는 것과 그 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나 여기에 그나마도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든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정해 두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이 두 가지 일을 똑같이 정해 두셨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죄를 위해 단번에 죽게 하셨으며 장차 우리에게 미칠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시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죽음과 죽음 후에 있게 될 두 가지 나타남을 미리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27~28절).

되돌릴 수 없는 죽음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개인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결코 반복되지 않습니다. 죽음이 오면 죽은 이진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는 사건이 아니라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사건입니다. “흠은 여전한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전12:7).

사람의 몸은 흠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확실한 진리입니다. 우리들에게 반드시 일어날 이 죽음의 사건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는 확실한 사건입니다. 그 누구도 이 죽음에서 피할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임의대로 미룰 수도 없습니다.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전 8:8).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한 번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사실들에 비추어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죽음

우리는 살아 가면서 여러 상황을 만나게 되고 여러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들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는 다음 기회를 통해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한 대부분의 일들은 다름이라는 기회가 있고 있습니다. 바닷물은 알만해도 그렇습니다. 바닷물은 겨울을 칠 때와는 봄을 칠 때와 달랐고, 물은 너무 많으면 넘쳐나 너무 적게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의 경험과 실수를 통해서 바닷물은 이미 익숙한 수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은 바닷물은 전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만일에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더라면 바로 그것으로 끝입니다. 죽음에는 다름이라는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맞을 준비를 합시다. 이 죽음이란 단 한번 지나가는 편도 여행입니다. 돌아오는 길은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정해 놓으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생사의 여문 대속자이기 위해 산체물로 자신의 생명을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약함이 죄를 짓지 않게 하고 계셨고 우리가 범한 죄 때문에 매우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버려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벧전 2:24). 이 말씀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을

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사 53:5-6).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희생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였습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5).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 분의 죽음은 결코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단회적인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처럼 예수님도 한 번 죽음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한 그의 제물되심이 완전했고 영원히 유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죽음은 그밖에 무엇을 더할 필요가 전혀 없이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죽음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만지고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의 보배는 그 능력을 결코 잃어 버리지 않습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죽음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음 후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도록 예정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후 5:10).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믿는 자들은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 상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일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마 25:31-46, 전 12:14, 롬 14:10-12). 따라서 이 땅에 속한 모든 자들, 특히 믿는 우리들은 이 마지막 심판을 늘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의 영광의 몸의 형태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행 1:11).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척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3).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불지더나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여야 아멘”(골 1:7).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까지 예수님을 고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과 거기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빌 3:20-21). 우리가 가지고 있는 썩어질 몸은 아주 천한 것입니다. 우리는 분향을 떠나 타향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착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천한 몸에서 완전한 몸으로, 생의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변할 그 날을 맞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선택은 없습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길 원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담대하게 심판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열망하고 고대합니다.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약속은 결코 무꾸어지지나 취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는 믿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음 앞에서 두 번째 기회란 없습니다. 선택은 없습니다. 이를 분명히 하여야 지금 준비하는 지체로써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Sermon of pastor Kim

NO CHOICE

"And inasmuch as it is appointed for men to die once and after this [comes] judgment, so Christ also, having been offered once to bear the sins of many, shall appear a second time for salvation without [reference to] sin, to those who eagerly await Him."(Hebrews 9:27~28)

From the moment you are born, two predestined and therefore unavoidable things will happen to you. You will die and you will appear before God. You have absolutely no choice about these two matters. God appointed these two things to happen to every human being! He also appointed Christ to die once for all sin and to appear a second time for salvation. God has already appointed these two deaths and after death, these two appearances. This is the announcement of today's message, "And inasmuch as it is appointed for men to die once and after this comes judgment, so Christ also, having been offered once to bear the sins of many, will appear a second time for salvation without reference to sin, to those who eagerly await Him"(vv. 27&28).

As such, each person will die once. Although many people have died and will die, death is not a repeatable experience for anyone. It is a one time event! It is not a continuous thing for any one particular individual. So, even though people have died and are dying all around the world, each person's death is a single and separate occurrence. The event of death is the separation of soul and body, "then the dust will return to the earth as it was, and the spirit will return to God who gave it"(Ec. 12:7). Man's body returns to dust and man's spirit will return to God for judgment. That's the inevitable and inescapable truth! The event itself will lead you to the great and momentous change in the mode and condition of your life.

There is real certainty to this event! It is appointed unto every man. No one can prevent it and no one can escape it. Nobody can find an excuse or run away from it. "No man has authority to restrain the wind with the wind, or authority over the day of death." In essence; no man has the power over his spirit to retain his spirit(Ec. 8:8). Death happens just once to each and every human being. It's not something that can happen again, again and again. It doesn't and it can't repeat itself. That's why you should think very, very, and very seriously about it. That's why you should prepare for it!

Of the many actions that take place in your lifetime, those from their earliest performances which were not done satisfactorily, usually can be made better. Most often there is a next time. Take for example the idea of cooking. If while learning to make rice, you don't cook it long enough or you add too much or too little water, over time you can learn to correct and perfect it. In between you may have awkward moments, but with continued practice you will get it. This is not the case with death. If at first you are not prepared, there is no second chance because this death experience never recurs. Let us stand prepared for it! It is a journey that is traveled only once with only one way ticket. There is no return flight back. Let us be ready for it!

The death of Christ was appointed by God, because God wants to save mankind. Jesus died as a sacrifice for sin. He offered His life to bear the sins of the world. In His heart, He had such a deep sense of the wickedness of human sin as was possible only for a being of perfect holiness. He moaned over sin with the deepest sorrow. He condemned it as ugly and wicked and He sought to deliver man from it. "He himself bore our sins in His body on the cross, so that we might die to sin and live to righteousness; for by His wounds you were healed"(1 Pet. 2:24). Isn't this really great news for you?

But He was pierced through for our transgressions, He was crushed for our iniquities; The chastening for our well-being fell upon Him, and by His scourging we are healed. All of us like sheep have gone astray. Each of us has turned to his own way; But the Lord has caused

the iniquity of us all to fall on Him(Is. 53:5&6). Amen! Jesus died and sacrificed Himself for the sins of all men. Why? "So that whoever believes will in Him have eternal life!"(Jn. 3:15) Jesus died for many, many men. His death can never be repeated. Repetition is impossible because His death was once and for all! A man can die only once and Christ can only be offered in death once. The repetition of Jesus' death is unnecessary because His offering was perfect in itself and its efficacy. Moreover, His death is perpetual - it touches each and every believer. Heaven asks no more and man needs no more! Jesus' precious blood never loses its power. The power of His blood continues until the ransom of sin is no more.

Let us fully understand what God has appointed for man and Christ. For He has also appointed after man's death his appearing at the judgment seat of Christ. "For we must all appear before the judgment seat of Christ, so that each one may be recompensed for his deeds in the body, according to what he has done, whether good or bad"(2 Cor. 5:10). Believers will be judged in a review of their works for the purpose of rewards, unbelievers will be judged in a review of their works for the purpose of punishment. The divine government of this world and the inequality between the characteristics, conduct, and circumstances of man are so many and so remarkable at present that it truly points us to the necessity of such a day. The Bible declares its certainty! Everybody will stand before Christ(Mt. 25:31-46; Ec. 12:14; Rom. 14:10~12). Every believer should have an awareness of future judgment.

Jesus will appear again! The angels told the disciples, "Men of Galilee, why do you stand looking into the sky? This Jesus who has been taken up from you into heaven, will come in just the same way as you have watched Him go into heaven"(Acts 1:11). This is a promise. Jesus promises, "If I go and prepare a place for you, I will come again and receive you to Myself, that where I am, there you may be also"(Jn. 14:3). Jesus is coming again, "Behold, he is coming with the clouds, and every eye will see Him, even those who pierced Him; and all the tribes of the earth will mourn over Him. So it is to be. Amen"(Rev. 1:7).

Jesus comes again to perfect salvation for His people. Our stance in relation to Him must be one of waiting and expecting. "For our citizenship is in heaven, from which also we eagerly wait for a Savior, the Lord Jesus Christ; who will transform the body of our humble state into conformity with the body of His glory, by the exertion of the power that He has even to subject all things to Himself"(Phil. 3:20&21). Our present state of mortality is a lowly one. We now live away from the place of our citizenship. But the day is coming when every Christian's position will change from low to high, from earth to heaven, from temporal to eternal. We must look for our Savior with desire and expectation of His coming.

The clear declaration of truth is that God has appointed two deaths and two appearances. God has appointed for you and me these wonderful two deaths and wonderful two appearances. My beloved, the sin that entered this world through Adam and Eve results in death. God wants to save us from death. That's why Jesus died on the cross. That's why we all will stand in judgment. We are enthusiastically looking for His coming. We have an appointment. It can't be canceled. Let's prepare for it now by living and loving through faith in Christ Jesus. There will be no second chance. There is no choice after death. 🙏

IV. 만국의 빛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심

2. 요나서에 나타난 선교적 메시지

예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를 명령하셨고, 선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다. 그러나 의무감보다 더 복음전파에 박차를 가하게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에 대한 열정이요 영혼에 대한 열정이다. 이 열정은 한 영혼을 전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죄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다 하라.

요나서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방인들, 니느웨 주민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당신의 백성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 나타난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 백성을 향해 '가라'고 명령하셨다('가라'는 동사는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실 때의 동사와 동일하다). 하지만 이러한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피해 가던 요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폭풍을 만났다. 그는 이 폭풍이 자신 때문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상관없는 듯이 배 밑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마치 오늘날의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을 잊어버리고 잠에 빠져 있듯이 말이다. 원수 나라요 이방인이었던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싫어하던 요나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생각을 대변한다. 그의 태도는 집을 나갔던 동생이 돌아오는 것을 싫어하던 형의 모습이요(눅 15장), 이방인을 향하여 차별적이고 편협적인 모습을 보이는 베드로의 모습이기도 하다(행 10장). 또한 요나의 모습은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게으른 오늘날의 교회들의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기도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흥미롭게도 요나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요나를 제외한 모두가 순종했다는 사실이다. 풍랑은 창조자에게 순종했고, 이방인들이던 선원들은 풍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 요나만이 불순종의 길을 걸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와 같은 사람들까지 사용해서 자신의 궁극적인 뜻을 성취하신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다. 모든 족속이 자신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은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길 원하시는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 땅의 모든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느낀다면...누가 우리를 위하여 살았는가? (사 6:8)라고 탄식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처럼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할 것이며, 영혼에 대한 강렬한 열정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선교에 있어서 의무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열정이다. 그분의 진리에 대한 열정!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열정! 그것이 필요한 것이다.

요나서의 핵심은 이방인과 원수 나라에 대한 하나님과 요나의 갈등이다(온 4:1~2, 9~11).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해야 할 순간에 요나는 하나님께 화를 냈다. 사실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4:1~2),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여 주시기를 원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았고, 그것은 요나에게 커다란 불만이 되었다. 그렇다면 요나가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 안에 제한시키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역시 은혜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신들만이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멸의식과 분리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낳았고, '니느웨' 백성들은 망망히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절로 탄식할 만했다. 요나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족속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무한한 긍휼인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철저하게 이기주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말았다. 한편, 요나의 이러한 태도에는 정치적 상황에 대한 이유도 있었다. 그는 현실적으로 원수 나라였던 '니느웨'가 심판을 모면하면 결국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이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네게서도 예언대로 모든 족속을 향한 자비를 행하셨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와 이방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며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겔 18:23). 결국 선지자 요나 한 사람의 한마디 선교가 수많은 '니느웨' 사람들을 돌이켜 만들었고, 하나님은 마침내 심판을 축복으로 바꾸셨다. 이렇듯 수많은 죽음에 이르러 될 모든 족속에게 놀라운 은사를 제공한다. 복음은 회개를 불러일으키고, 회개는 심판을 축복으로 바꾸어 낸다(온 3:4, 7, 8, 10).

비록 어떤 사람들은 요나의 사건에 대하여 그 역사성을 의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마 12:38~41), 우리는 요나서는 역사적 사실로서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낸 책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신 목적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다(롬 3:22).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족속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며(갈 3:28), 장차 임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알리기 위함이다(마 12:41). 또한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렘 2:16). 이방인 가운데 영광의 소망을 나타내기 위함이며(골 1:1), 은혜에 대한 그들의 감각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진정으로 경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백성들을 만드시기 위함이다(제 3:16, 19).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다. 요나가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긍휼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요나 자신이었다. 그의 편협한 마음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오늘날에도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또 다시 반복되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아버지의 그 긍휼을 느끼지 못하는,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선교의 큰 장애물이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선교에 대한 의무보다는 열정이 더 필요하다. 모든 교회는 모든 족속을 되찾고자 이 땅에 내려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을 가장 필요로 한다.

3. 다른 예언서들에서의 열방을 향하신 이스라엘의 선교

요엘은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만민에게 여호와의 날, 영원한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했다. 그의 선포는 모든 족속을 향해 회개를 촉구한다. 선교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것이며, 이런 점에서, 요엘서는 지금껏 극적이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욥 2:28~29). 만민에게 임할 성령에 대한 약속은 선지자들의 초교교회적 입장에서, 오늘날에도 우리는 동일하게 땅 끝까지 가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라고 말했다(암 9:11~12). 그리고 훗날 그의 예언은 예루살렘 초교교회에 직면한 선교적 문제, 즉 이방인의 할례 문제를 결정짓는 권위적인 근거가 되었다(행 15:13).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요구를 문학적 기준으로 결정하고, 구원의 근거가 오직 믿음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초교교회는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결정적인 근거로 삼았다.

요엘과 아모스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복음이 땅 끝까지 확산될 것에 대해 예언했다. '미가' 선지자는 모든 민족들과 이방이 여호와와 산으로 나아오며 될 날을 노래했다고(미 4:1~5).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할 날이 올 것을 노래했다(사 11:9~10). 그 날에는 애굽과 앗수르(모든 이방인을 상징)가 여호와를 향하여 경배하게 될 것이며(사 19:21~23, 25), 모든 민족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사 25:7~8). '예레미야' 선지자는 열방이 예루살렘에 모일 것을 바라보았다고(렐 31:7). '그라야' 선지자 역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죄악들을 정제함과 동시에 참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바라보았다(스 2:10~11, 8:20~23, 14:16~19).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만국의 빛이 되라고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부르시고 명령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거룩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열정을 고지하고 의무마저 망각해버리고 말았다. 약속의 땅에서 이방의 빛이 되기는 커녕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조차도 살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제로라도 그들을 흠여버리셨다. 비록 자기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고통을 느끼며 살아갈지라도, 모든 족속을 부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을 기어이 이방의 빛으로 삼으실 것이다.

◆ 현재 지역 중인 선교팀

기 간	선교지	팀	팀 장
8월 4일(월)~8월 13일(수)	인 도	10교구 1지역	장영환
8월 4일(월)~8월 14일(목)	스리랑카	17교구 14지역	이인영
8월 4일(월)~8월 12일(화)	필리핀	Dale Ashworth 팀	
8월 5일(화)~8월 15일(금)	카자흐스탄	7교구 3지역	임창식
8월 5일(화)~8월 13일(수)	우즈베키스탄	16교구 4지역	홍원석
8월 5일(화)~8월 14일(목)	방글라데시	1교구 12지역	구원섭
8월 5일(화)~8월 14일(목)	방글라데시	10교구 3지역	김영록
8월 5일(화)~8월 14일(목)	방글라데시	15교구 4지역	하 오
8월 5일(화)~8월 14일(목)	방글라데시	17교구 1지역	윤석민
8월 5일(화)~8월 14일(목)	방글라데시	17교구 3지역	이호일
8월 5일(화)~8월 14일(목)	스리랑카	6교구 7지역	문연식
8월 5일(화)~8월 14일(목)	스리랑카	10교구 8지역	노태경
8월 5일(화)~8월 14일(목)	스리랑카	11교구 7지역	김인술
8월 5일(화)~8월 16일(토)	우즈베키스탄	9교구 4지역	홍성욱
8월 5일(화)~8월 16일(토)	우즈베키스탄	11교구 4지역	김철환
8월 5일(화)~8월 14일(목)	인 도	2교구 4지역	구재환
8월 5일(화)~8월 15일(금)	카자흐스탄	2교구 7지역	박창서
8월 5일(화)~8월 15일(금)	카자흐스탄	12교구 4지역	윤우선
8월 6일(수)~8월 15일(금)	불가리아	11교구 3지역	석영식
8월 7일(목)~8월 14일(목)	키르기즈스탄	2교구 11지역	박상대
8월 7일(목)~8월 14일(목)	키르기즈스탄	9교구 9지역	이명희
8월 7일(목)~8월 14일(목)	키르기즈스탄	13교구 2지역	최준호
8월 7일(목)~8월 14일(목)	키르기즈스탄	13교구 5지역	김은철
8월 7일(목)~8월 15일(금)	인 도	4교구 1지역	이상석
8월 7일(목)~8월 15일(금)	인 도	16교구 1지역	김병권
8월 7일(목)~8월 15일(금)	인 도	16교구 2지역	김장영
8월 7일(목)~8월 15일(금)	인 도	16교구 7지역	이기숙
8월 8일(금)~8월 16일(토)	우즈베키스탄	3교구 7지역	김신국
8월 8일(금)~8월 16일(토)	우즈베키스탄	5교구 8지역	양기수

◆ 이번 주 출발하는 선교팀

기 간	선교지	팀	팀 장
8월 12일(화)~8월 20일(수)	불가리아	8교구 7지역	김종홍
8월 12일(화)~8월 20일(수)	불가리아	8교구 9지역	김중선
8월 12일(화)~8월 20일(수)	키르기즈스탄	17교구 12지역	박광래
8월 12일(화)~8월 22일(금)	카자흐스탄	9교구 3지역	정재도
8월 12일(화)~8월 22일(금)	카자흐스탄	9교구 10지역	박문태
8월 13일(수)~8월 21일(목)	리투아니아	5교구 6지역	김달현
8월 13일(수)~8월 22일(금)	스리랑카	17교구 5지역	정선현
8월 13일(수)~8월 22일(금)	리투아니아	17교구 6지역	이용현

◆ 지난 주 도착한 선교팀

기 간	선교지	팀	팀 장
7월 26일(토)~8월 4일(월)	인 도	8교구 8지역	손기현
7월 28일(월)~8월 6일(수)	네 팔	2교구 10지역	박홍규
7월 30일(수)~8월 8일(금)	네 팔	2교구 12지역	한송규
7월 30일(수)~8월 8일(금)	네 팔	2교구 13지역	엄복섭
7월 28일(월)~8월 6일(수)	네 팔	7교구 1지역	박용기
7월 28일(월)~8월 8일(금)	불가리아	11교구 7지역	양한원
7월 28일(월)~8월 7일(목)	불가리아	4교구 8지역	류기명
7월 28일(월)~8월 8일(금)	불가리아	6교구 3지역	박광식
7월 28일(월)~8월 8일(금)	불가리아	6교구 4지역	고재승
7월 28일(월)~8월 6일(수)	불가리아	17교구 10지역	권병철
7월 29일(화)~8월 8일(금)	키르기즈스탄	2교구 2지역	이계인
7월 28일(월)~8월 8일(금)	인 도	9교구 2지역	강희창
7월 28일(월)~8월 8일(금)	인 도	16교구 6지역	강만호
7월 29일(화)~8월 8일(금)	키르기즈스탄	3교구 1지역	최남하
7월 29일(화)~8월 8일(금)	키르기즈스탄	3교구 2지역	이달옥
7월 29일(화)~8월 8일(금)	키르기즈스탄	3교구 5지역	문효식
7월 29일(화)~8월 7일(목)	불가리아	3교구 3지역	김희선
7월 30일(수)~8월 8일(금)	불가리아	6교구 4지역	김영주
7월 29일(화)~8월 8일(금)	카자흐스탄	14교구 2지역	전은배
7월 29일(화)~8월 8일(금)	카자흐스탄	에바다부	조종환
7월 30일(목)~8월 8일(금)	우크라이나	8교구 1지역	추병창
7월 30일(수)~8월 9일(토)	스리랑카	2교구 8지역	정은환
7월 30일(수)~8월 9일(토)	스리랑카	12교구 7지역	이병영
7월 30일(수)~8월 9일(토)	스리랑카	17교구 4지역	정부조
7월 30일(수)~8월 9일(토)	스리랑카	17교구 2지역	김흥기
7월 31일(목)~8월 7일(목)	키르기즈스탄	4교구 7지역	신선길

성경의 자세로

김 진 경 (외선부, 스리랑카인 교사)

“사미다노 어버락스 카야노~(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은 스리랑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한국에 와서 많은 일들로 상처받고 있는 스리랑카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스리랑카 지체들 볼 때면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외선부에 있으면 스리랑카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스리랑카 교사와 찬양인도자로 사용하시며 저를 많이 낫추셨습니다. 제 힘으로 영혼을 섬기려 하고, 제 힘으로 찬양인도를 하려고 했던 교만한 부분들을 적으십시오.

저에게는 영혼들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찬양인도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함께 찬양해요~”라고 말하면 외선부 식구들은 그저 저를 바라보며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때는 미소지어 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참 감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스리랑카 사람들은 찬양시간에 반응이 없었고 그럴 때면 저는 저의 무능함 때문에 함께 은혜를 나누지 못하는 것 같아 참 속상하고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그 찬양인도의 실패가 저의 무능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얻은 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했던 교만 때문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을 때의 찬양시간은 정말 감사하기만 합니다. 지금은 찬양시간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지금은 스리랑카 지체들도 함께 일어나 몸과 맘으로 찬양합니다. 그들이 찬송을 부르며 은혜를 받고 성경책을 가슴에 꼭 품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들 통해 아주 조금씩 변화되는 외선부 스리랑카 지체들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귀한 영혼들이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만 소망하며 믿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사랑해야 할 귀한 영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섬기는 것과 제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삶을 배웁니다.

지금 스리랑카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000명 정도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고 합니다. 스리랑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스리랑카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귀하신 계획을 꿈꿉니다. 그리고 비록 저는 부족하지만 스리랑카 지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강하시므로 기도하며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참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 만져주시 하나님

이 주 회 (대학부)

저에게는 옳고 싶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보던 일들이 저에게 일어났을 때, 믿지도 않던 하나님을 찾으며 또 나에게만 이런 아픈 상처를 주시냐고 원망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차서 늘 가슴이 답답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저의 상처를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 처음으로 교회에 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해 한 번도 깊이 생각하지 않았고 낯선 사람이 전도지를 나눠줄 때 매몰차게 무시할 정도로 관심이 없었기에, 교회 출석은 저에게 대단한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도 저는 여전히 상상치만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련회 가라는 제의를 받았고 어떻게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수련회
에서 제육십이 있던 날, 기도와 뉴욕도 하나님께 제의 모든 죄를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 안에 갇혀 있던 미움, 욕심, 이기심, 세상에 대한 호의를 제 침술로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크신 사랑으로 저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물의 하나님이나 우리, 우리의 상을 지우히시며, 제
생애 모든 사람들을 버릴지라도 나를 버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정
말 많이 울었습니다. 몇년 동안 쌓아왔던 눈물을 다 쏟아내니 신기하게도 오랜 세월
앞에서 쌓여있던 감 잡음이 사라졌습니다. 제게 필요했던 긴 바로 누군가의 앞에서
가식없이 소신여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눈물을 이해해 줄거라고 기대
했던 사람들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오히려 저를 비난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습
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이권 기득의 사람들은 모두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아
해하시고 사랑으로 나의 죄를 감싸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
니다. 주님을 만나게 된 순간, 제 조금 더 일찍 오지지 않고 했들 때 내 고향에 계시
지 않았느냐고 제 마음을 잠시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선 그런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도와 주려고 곁에서 네 마음의 문을 두드렸
는데 네가 알지 못하였구나.”

이제 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몇 번씩 읽어도 알 수 없었던 성경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겠다는 생각
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처럼 언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를 위해 생가
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사실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임을 알
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이 은혜는 참으로
귀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날 기쁨의 눈물을 머금으며 가슴 속의 메마린 토창
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제 겨우 잠은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시험하실 때에도, 세상 일에 혼란스러울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고난을 이기는 지혜와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요.

충현 젊은이들이 말하는 **‘십자가’**

'집자의 의미'라는 단어를 처음 떠올릴 때 생각나는 찬양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이 한양과 같이 제사장 집사자를 기쁨으로 지기로는 사람인지 생애를 붙디라. 얼마 전 단기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제사장 제일이 전하고 했던 집사자에서 우리 회를 대신하여 축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제대로 보시기에 이들을 모심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우리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애에 이르지 못하는 장차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를 얹혀 발하시지만 죄인인 우리까지도 사랑하시는 까닭에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로 하여금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영애에 참여하게 되는 존귀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죽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라 달라야 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달려 죽으셨습니다. 또 십자가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으므로 죽음을 이기고 죄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모든 이들은 예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영원히 죽게 될 나라는 영혼을 구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를 주셨습니다. 고생자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표현할 수 없고, 단지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사랑을 믿는 자로서, 이것을 전할 사명을 지녔습니다. 그리고 평생 의지하며 살아갈 길도 역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의 십자가를 끼쳐 지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신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하게 순종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노력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많은 성도들이 그러했듯이 저도 죽기까지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이지 생각해 봅니다. 주를 향한 저의 열심과 믿음의 진로들이 말뚝인 공허한 것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실 때 망설이지 않고 고백하는 흔들림 없는 자이길 바라며, “네 십자가를 지라”라고 명령하실 때 물러서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사도 바울, 베드로,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걸어간 십자가의 길을 저 또한 밟고자 합니다.

심자가의 도를 전하는 자에게는 꺾박과 고난이 함께함을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싸움은 육체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적인 전투이기에, 제가 심자가를 지고감에 따르는 모든 환난은 주님께 맡깁니다.

저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섰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 하고 싶습니다. 십자가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영혼의 생명을 믿고 전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연약한 저를 늘 이끄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조선희(장학생)

2003 유방기 자화상 면담

전액 장학생(5명)

1기(98):	김범진	권영일	2기(00):	이희주
3기(01):	이복순		4기(02):	오경희

대학원생 (15명)

김경희	김민철	김창배	김형건	김혜진	박윤식	백경희	백은경
안영희	오철룡	이진아	이평희	정미현	조수진	추진희	

대학생 (116명)

노보은	강성원	강건우	강한나	강현지	고혜연	곽현우	구새훈
권성재	노수엽	권지현	김 결	김영미(1)	김광희(2)	김주리	김도현
김보성	김보성	김소연	김수연	김현진	김승기	김신영	김아란
김예리자	김연진	김영민	김영준	김인애	김민준	김홍세	김지혜
김지희(1)	김지희(2)	김한미	김현바다	김현로	김현경	김현우	김혜선
김희연	남윤경	노미소	민수정	박경옥	박상옥	박수정	박윤정
박보은	박이영	박하란	박하윤	배성준	배하린	변영현	송민진
안경호	안윤준	이용도아	오민오	오상규	유병규	유원주	유종민
윤은진	윤지현	이 석	이단비	이대우	이덕용	이병희	이상규
이성훈	이정민	이선하	이성준	이주은	이유정	이재성	이재욱
이정민	이정은	이정주	이현수	이지영	이하나	이현주	이형남
이혜선	이효진	임지혜	장나수	장우민	장정은	장현민	최민일
정국용	정하나	정혜원	조소희	조수진	조영훈	지은희	전유진

최윤경	최지승	최지현	최철희	최형원	주희은	한다경	한성은
한정우	허에스더	홍성남	황혜진				

고등학생 (79명)

김민경	강운호	강재구	고혜진	권다현	김다하	김근태	김병우
김진아	김선영	김소미	김소영	김성진	김아름	김재진	김용현
강은영	김태현	김다미	김숙희	김희정	박 행	박경훈	박성준
박기민	박연옥	박근지	박주영	박준규	박지훈	백지수	백지연
손석호	손은혜	신동진	신장아	양영은	양효진	염혜실	오상민
유미나	윤태원	이다정	이동훈	이민정	이슬기	이영훈	이정민
이주연	이준형	이지연	이지유	이지훈	이진구	이영술	이혜원
이훈휘	임민식	강진호	전선영	전혜연	정준성	정지윤	정지혜
조성미	조요정	조은진	조종원	주혜연	지은미	지효정	차병철
최창미	최 용	한은정	한태정	하아연	형윤옥	홍경자	

종합생 (5명)

강 건 김준환 김지혜 이상륜 이재열

장학금 수여식 및 영성훈련 실시(대학생·대학원생)

2003년 8월 15일(금) 금요집회 후 베다니홀

고난을

통해

응답된

기도

"믿음과 사랑, 모든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구원의 영광을 더 깊이 알게 하시며
주님 얼굴 더 간절히 구하게 하소서."
나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네.

그렇게 기도할 마음 주신 분 주님이셨고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신 분도 주님이셨네.
하지만 놀랍게도 주님의 응답은
내가 깊은 절망을 맞은 후에야 왔네.

주님이 내 기도 즉각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소망했지만,
주님이 그 강권하시는 사람으로
내 죄를 정복하시고 내게 안식 줄 기대했지만.

기대와 달리 주님은
내 마음 속 속은 죄악을 보게 하였고
저의 맹렬한 세력이 내 영혼 구석구석을 공격케 하셨네.

더욱이 주님은 손들어 나를 치셨고
내게 임한 재앙 더 비참하게 하시려는 듯
내 모든 계획 다 가로막으시고
내 모든 희망 산산조각 내시며
나를 깊이 깊이 낮추셨네.

"주님, 왜 이렇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별레 같은 저를 죽음으로 몰고 가시나이까?"
두려움에 떨며 물었을 때
주님 내게 말씀하셨네.

"은혜와 믿음을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하는 내 방식 바로 이것이니
자야와 교만으로부터 날 자유케 하려
이 세상 기쁨에 대한 너의 추구 깨뜨려
그런 내적 시련을 네게 준 것이라.
이는 너로 모든 것 내 안에서 구하게 하려 함이라."

- 존 뉴턴(John Newton)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1. 특별히 사모하는 찬송과 그 찬송에서 어떤 은혜를 받는지 말씀해 주세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가르침으로 신앙생활을 해 오던 저는 언니와 함께 찬양하는 것이 여가시간의 전부라 될 만큼 찬양을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언니가 결혼을 하여 떨어져 지내고,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찬양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제 마음 속에 맺도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것은 28장 '복된 근원 강림하사'입니다. 가정예배를 드릴 때마다 부르던 찬송인데, 요즘 들어 그 가사가 더 크게 저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주의 은혜를 받고 빛진 자로 살아가는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제가 근심이 있을 때에 가정예배 때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소망할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2.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왔는지 말씀해 주세요.

어렸을 때부터 언니와 함께 손잡고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유독 찬양하는 것을 좋아해서 언니는 피아노를, 저는 성악을 전공하여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항상 말은 부에서 성실하게 순종하며 봉사하라는 부모님의 가르침으로 신앙생활을 해 왔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으로 별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3.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찬양을 할 때마다 제 자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찬양하는 그 순간 제 자신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찬양하는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사람들을 앞에서 찬양을 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찬양하게 하십니다. 찬양은 저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에게 숨을 쉴 수 있게 하시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4. 기도제목들 말씀해 주세요.

대학 다닐 때부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일에도 항상 감사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려면 순종이 함께 해야 함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더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의 길을 깨닫고 순종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정희 선생

(임해원 기자)

할렐루야 찬양대 솔로리스트

다음 주일 찬송

190장 "생물과 같은 보혈은"

작사자 윌리엄 카우퍼(William Cowper, 1731-1800)가 1771년에 작사한 찬송가이다. 윌리엄 카우퍼는 영국의 대표적 낭만파 시인으로 평생 주기적으로 우울증에 시달려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하다가 정신병원에서 요양했었는데, 어느날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3장 25절에 의해 속죄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 부흥집회 때 남군의 '군관'이란 병사가 새로이 신앙을 가지고 그의 친구 510여명과 더불어 래피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이것을 지켜보던 북군들도 강도로 몰려나와 남군과 함께 찬송을 불러 전쟁중에 원수들이 한 찬송가로 하나되었다는 것이다. 작곡가는 "Western Melody" 또는 "Unknown"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며 로렌 메이슨의 곡이라고 명시하는 곳도 있다.

1절: 임마누엘께서 우리에게 보혈로 가득한 생이 있네.

죄인들이 뛰어들어 일찍인 죄의 흔적 깨끗이 씻네.

2절: 죽을 당하는 도적 그 생 보고 기뻐하였네.

도적같이 간악한 나도 그 생에서 죄 씻어 주소서.

3절: 죽음당한 사랑하는 어린 양이여, 구속 받은 모든 교회 구원 받아서

더 이상 죄짓지 않을 때까지 주의 보혈 결코 능력을 잃지 않으리이다.

4절: 당신의 상처에서 흐르는 보혈의 흐름을 믿음으로 본 후 구속의 사랑이

나의 노래 제목이 되었고 내가 죽을 때까지 나의 노래 제목이 되리이다.

5절: 머뭇거리며 잘 돌지 않는 나의 거련한 혀가 무덤에 고이 누울 때

더 고상하고 감미로운 노래로 당신의 구원의 능력을 노래하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의 죄를 정하게 하신다는 확신 속에 구속의 은혜를 늘 찬송해야 한다.

"이 찬송가 가사는 영문 찬송가를 번역한 것으로 총신 성도들도 하여금 주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 찬송가와 대조하시면서 묵상하시면 복음의 진리가 더욱더 드러날 것입니다.

(찬양위원회)

새 · 가 · 축 · 을 · 찬 · 영 · 합 · 니 ·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015	이성진	1 교역자		1027	조한태	5 청년2부 표미자(7)		1039	유승도	19 청년1부 이옥자(2)	
1016	이숙희	1 교역자		1028	박우강	6 소망부 이희자(6)		1040	조용식	19 청년1부 신정숙(8)	
1017	이은미	1 교역자		1029	이소자	13 소망부 권순경(13)		1041	서수열	19 청년2부 정선현(17)	
1018	이재영	1 교역자		1030	김영진	16 청년2부 조홍진(14)		1042	전혜리	19 대학부 김봉호(19)	
1019	김경아	1 교역자		1031	박길화	16 청년2부 조홍진(14)		1043	이영은	19 대학부 민정현(19)	
1020	조규호	1 교역자		1032	이만규	16 청년2부 김중선(8)		1044	함형일	19 대학부	
1021	김지혜	1 교역자		1033	임희자	16 청년2부 김중선(8)		1045	권유나	19 대학부 전수린(4)	
1022	최경진	1 교역자		1034	이강식	17 청년2부 김문현(16)		1046	임영수	19 대학부 김정현(19)	
1023	하성덕	1 교역자		1035	손봉재	19 청년2부 표미자(7)		1047	전선애	19 고등부	
1024	이선화	2 청년2부 이현애(4)		1036	박정현	19 청년2부 김용숙(8)		1048	이소연	19 중등부 박경희(1)	
1025	이순희	3 의전부 이득혜(15)		1037	박수옥	9 청년2부 한홍운(17)		1049	손지숙	19 중등부	
1026	전원익	5 청년2부 표미자(7)		1038	박종덕	19 청년2부 오보민(3)					

※ 출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과 이루시자 하시시는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처한 환경과 주어진 운명때문에 절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나도 배변 환경과 주어진 삶 앞에서 고민을 한다. 삶이 그냥 고난의 연속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익숙해진 기도로 여러 절망, 무릎을 하나님께 대어놓을 때도 있다. 힘으로도 버틸 수 없는 걸 알고 소리라도 지르고자 나간 새벽기도에서도 소리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런 작은 이런 경험을 해본 분들이 있을 것이다. 요즘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며 이런 자신이 믿고 싶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원이라는 이름을 지명하여 불러 주셨는데, 또 우원이는 단기선교 등을 하도록 하나님 증인으로 선택받은 소중한 사람인데,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증인으로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바쳐 겸손히 경배하는 모습이 아닌 그저 적당히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으로 불명하고 사는 일이 많은 것 같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물론 단기선교도 다녀왔지만 삶의 여러 가지 불안과 고민이 계속되는 중에 사랑부 수련회를 준비하였고 7월 16-17일 기도원에 서 사랑부 수련회가 시작되었다. 저녁식사조차 하지 않고 바빠 예배와 저녁기도회 시간 준비로 아주선하게 움직였다. 기도회는 예정시간보다 30분 늦게 기도원 버스 주차장에서 성곡으로 시작되었고,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준비한 만큼 잘 되고 있어 마음이 훌쩍했다. 성곡을 마치고 목사님의 인도로 촛불 기도회가 찬양과 함께 자연스럽게 시작되었다. 촛불점화도 잘 되고 있어 좋았다. 모두가 촛불을 들고 주차장에 크게 원을 그리고 나와 목사님께서 모두 바닥에 무릎꿇고 기도하자고 하셔서 그곳에 있던 사랑부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 장로님, 목사님 모두가 무릎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한 10여분 지나서는 딱딱한 시멘트 바닥과 작은 돌가루가 무릎을 아프게 했지만 예수님 앞에 무릎꿇는 장에우들의 얼굴에는 눈물과 절단과 감사와 기쁨이 가득했다. 한 10여분 지나서는 딱딱한 시멘트 바닥과 작은 돌가루가 무릎을 아프게 했지만 예수님 앞에 무릎꿇는 장에우들의 얼굴에는 눈물과 절단과 감사와 기쁨이 가득했다. 한 10여분 지나서는 딱딱한 시멘트 바닥과 작은 돌가루가 무릎을 아프게 했지만 예수님 앞에 무릎꿇는 장에우들의 얼굴에는 눈물과 절단과 감사와 기쁨이 가득했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행 2:2).

오순절 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셨던 성령께서는 이날 밤에도 급하고 강

한 바람처럼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으로 경배하며 갈망하는 장에우들에게 임하셨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그 모임 가운데 가득함을 알 수 있었고,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련회 기간 중에 보이는 프로그램만 잘 진행하고자 허둥대고 바빠 움직이던 내 모습. 나는 삶에서도 나를 위해서 허둥대며 바쁘게 움직이고, 걱정 근심하지는 않는가? 나는 아직도 다른 것들에 대한 갈망에도 또 다른 은혜만을 구하는 데 무릎 꿇는 어리석은 나 자신이 아닌가!

그저 적당히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교회를 나서는, 스스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생각하지만 내 필요를 위해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무엇이든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는 나의 모습이 십자가의 못 박하신 예수님의 회복을 갈망하는 장에우들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부끄러워졌다.

이번 사랑부 수련회를 통해 나는 지적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심으로 깨달았고, 이로 인해 또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했다. 먼저 그나라와 그 의를 구할 줄 알고, 장에 있지만 모든 걸 다 바쳐서 겸손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에우처럼 진정 하나님만을 사모하기를 원한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영혼들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할 기도한다. 물 속에서 밖에 있는 공기를 사모하듯이 말이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조 우 원 (사랑부교사)



오래만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토요일 늦은 밤에 감미로운 찬양이 휴대폰에서 흘러나왔다.

'이 시간에 전화 올 곳이 없는데 누구지?'

호기심에 기대만, 약간 귀찮은 듯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음, 유석아~ 나야. 제천이."

이릴 적부터 같이 자라는 친구였다. 초등학교 때 늘 붙어다니 정도로 친했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면서도 절친한 친구로 지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이니, 결혼이니 하며 사는 게 바쁘다는 핑계로 요즘은 연락이 뜸해진 반가운 목소리였다.

"요즘도 천령교회 다니? 봉사는 어디서 해?"

"음, 예배다밖에 있어."

"부도님은?"

"다 잘 가서, 너는 직장 어때?"

여러 가지 안부를 묻고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어서 애써 할 말을 찾다가 그냥 다음에 꼭 만나서 식사나 하자라는 약속을 남기고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정말 친하게 지내던 친구의 전화가 이렇게 서먹서먹하고 어려울 줄이야.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분명한 건 내가 연락했을 때도, 또 그 이전에도 언제나 이렇게 애써했다는 것이다. 학사 어렵게 전화를 해도 할 이야기도 별로 없고 가족들 안부나 알고 나면 그저 하는 일 잘되기를 바란다는 얘기나 하다가 이내 서먹서먹해졌다. 속으로는 일론 전화를 끊었으면 하는 바람도 반가운 아래 늘 자리잡고 있었다. 물론 이런 서먹함이 친구사이의 일 만은 아닐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예수님과 나 사이도 그런가? 오래만에 만나는 사이처럼 서먹서먹할까?

그리고 보니 아니라고 참아낸 자신이 없었다. 마음이야 늘 기도하고 하나님 사모하며 살아야겠다는 마음이지만 친구사이의 일 만은 아닐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핑계로 가정예배도 일주일에 한두번 빼먹는 것은 기본이고 따로 기도시간을 가져야겠다는 다짐하기를 하루에도 서너번, 그러나 다짐만 서너번 하다가 하루가 그렇게 지나가 버린다. 이제다 눈비고 새벽기도를 갈라치면 꾸벅꾸벅 졸다 돌아오기 일쑤고, 기도제목만 수첩에 잔뜩 적어두고 펴보지도 않는 것이 나의 모습이였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마음 한쪽이 무거워졌다. 그래서, 오늘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기도를 한다.

"주여, 제 모습이 이렇게 못났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소망하오니, 하나님 크신 권능으로 인도하십시오. 아멘."



김 유 석(예배다부 교사)

믿음의 학교

사울의 회심(행 9장)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15절).

스데반이 들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때 사울은 스테반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7:58). 사울은 그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그가 죽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납득하기 힘든 사실이었지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사울은 다메섹으로 도망간 믿는 자들을 잡으러 떠납니다(2절). 다메섹까지는 약 230km 정도입니다. 1주일 거리를 단숨에 달려가고 있었지요(3절). 그때에 밝은 빛이 사울을 비추며 밟히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4절).

예수님께서는 그를 땅에 엎드리게 하시고, 눈을 멀게 하셨지만 그의 마음과 인격은 철저하지 않았습니니다. 말을 잘 듣는 로봇으로 만들어 놓지는 않았셨다는 것입니다. 또는 회개를 결서 먹지로 어떠한 행동을 하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직접 깨닫게 하시고 그의 양심으로 느끼게 하셨습니다. 또 사울은 이성을 잃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주여 뉘시오니이까..."(5절), "...무엇을 하리이까..."(22:10)라고 물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주님께서 사울을 찾으신 것은 은혜입니다. 사울의 이성을 무시하지 않으신 큰 은혜로 사울의 자유로운 반응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교교로 편견, 어짐을 벗고 회개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의 포로가 되길 원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으로 인하여 잘못거리며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잡기 전에 먼저 주님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사울의 회심은 자기 자신의 엄청난 내면적인 고통을 통한 결단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빌 3:12).

(원형일 기자)

교회소식

모임

1. 권사 2지회 월례회
일시: 13일(수) 수요1부 예배 후
장소: 영아부실

결혼

1. 김종민 군(김승배 집사, 박철순 집사의 아들, 17교구)과 이희정 양(이영재 씨, 정광자 집사의 딸, 동부교회) / 8월 15일(금) 12:00 갈릴리움
2. 권영일 군(고옥순 성도의 아들, 은혜교회, 19교구)과 박순미 양(19교구) / 8월 15일(금) 14:00 갈릴리움

별 세

1. 박신웅 타고성도 박상자 집사의 부친, 3교구 방흥구역/ 7월 31일 별세, 8월 2일 장례
2. 윤재춘 집사 서정희 집사의 남편, 13교구 동촌2구역/ 8월 3일 별세, 8월 5일 장례
3. 강정일 집사 권요섭, 권애스드 성도의 모친, 17교구 은행구역/ 8월 5일 별세, 8월 6일 장례

직원모집

교회에서 근무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운전직·경비직
2. 자 격 세례교인
3. 제출 서류 자필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당회장 추천서(타
4. 서류 제출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
총현교회 사무국 ☎ 552-8

대한예수교 **총회** 회

◆ '충현교회 찬송가 제1집' 판매

충현교회가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에 전령하고 있는 즈음에 '충현교회 찬송가 제1집'이 테이프와 CD로 제작되었습니다. 모두 18곡이 수록된 '제1집'은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이다'라는 시편 96편 2절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충현의 일꾼들에게 믿음과 헌신의 동기를 부여하고 성교에 동참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만세곡 : 서구국 / 판매대금 : 테이프 1,000원 / CD 3,000원)

◆ 선교위원회 헌신예배

- 3 대상: 선교위원회 실행위원, 147개 팀장 및 팀원, 선교에 푹이 있는 분

◆ 남녀 전도회 상반기 회계감사 실시

전도 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상반기 회계감사를 실시합니다. 각 전도회에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감사기간 : 2003년 7월 첫 주 ~ 2003년 8월 마지막 주일까지 2. 대상기간 : 2003년 1월 ~ 6월
3. 감사장소 : 전도위원회 (교육관 6층) 4. 준비서류 : 시산표 2부 (2003년 1월 ~ 6월), 금전출납부, 원장, 영수증철

2003년도 제4차 학습세례식 안내							
날짜	시간	학습자	정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정소	유아세례자	정소
8월 10일 (주일)	1교시 15:00~15:50	성경개요 (김익환 목사)	교주 30:00	교회론 (김교성 목사)	교주관 30:00		
	2교시 16:00~16:50	기독교론 (고광한 목사)	교주관 30:00	구원론 (위건달 목사)	교주관 30:00		
8월 17일 (주일)	1교시 15:00~15:50	기독교개요 (임현덕 목사)	교주관 30:00	세례란 (맹준영 목사)	교주관 30:00	유아-세례자?	교주관 30:00
	2교시 16:00~16:50	문답	교구별 정소	문답	교구별 정소		
8월 24일 (주일)	찬양예배	성인 학습 - 세례식	(지Nick 찬양예배, 분당)		유아 세례식	(오후 3시, 갈릴릴루)	

이번주 새벽기도회 담당

	11(월)	12(화)	13(수)	14(목)	15(금)	16(토)	17(주일)
설교자/기도자	정진호/노광원	최종철/양병진	정현빈/김규석	서광진/정운환	김동하/양한원	이종대/홍순애	나광영/이옥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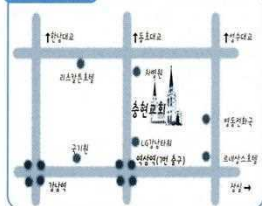
예배 담당안내 (8/13~8/17)

날짜	연세	연세 전 진안	시	기	도	설	고
873	수호 I		이종대	장영모		민중을 화합하자(41-2) 김용국 목사	
873	수호 II		양재호	권순애		영성의 소망(121-20) 하용원 목사	
875	금호 김희	특별한 날(마이클슨 장지재 고등부/매니 유승훈, 고등부)				김용국 목사	
877	유일 I		이희선	이영학		선배는 읽다(97-20) 여영자 목사	
877	유일 II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의(마르틴 루터 신장(1842: 의정장)				그리스도의 완전한 화해(92-20) 황정석 목사	
877	유일 III	만약의 왕 주께 가까이와(의정장) (마르틴 루터)	이종훈	김용국		선배는 읽다(97-20) 여영자 목사	
877	유일 IV	만약의 왕 주께 가까이와(의정장) (마르틴 루터)	정진호	김용국		선배는 읽다(97-20) 김원희 목사	
877	유일 V	주께 내가 가까이와(의정장) (마르틴 루터)	김용국	김정희		성령의 사랑과 성령의 화해(97-20) 김용국 목사	
877	유일 VI		정기찬			그와 가까이와(성경) (93-15) 김교자 목사	

충현기도의 창

- ① 김경선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경에서 통치하시므로도 통치한 열매를 맺는 양친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의 진리를 전보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 ② 모든 교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소서.
- ③ 하소리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가 진리를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림을 힘쓰게 하소서.
- ④ 총회연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세우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주어진 대제 목료를 성취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⑤ 모든 위원회에 속한 가권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타진하게 하소서.
- ⑥ 구급대 지사 전도의 교회 전도 전도를 통하여 총회연회가 민족복음화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성취하는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소서.
- ⑦ 단기선교를 통하여 총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족속과 열방을 향하여 구원의 빛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

교회 오시는 길



예배 및 집회 안내

구분		시간	장소
주 일 예배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III	오전 11:00 (수학, 외국어, 동성통역 예배)	본당
	IV	오후 1:00(국어) 동성통역 예배	본당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본당
찬양예배		오후 5:00	본당
초양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30	본당
금요집회		오후 7:3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당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I 오전 9:00 II 오전 10:50	교육관 110호
유아부	I 오전 9:00 II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유치부	I 오전 9:00 II 오전 10:50	제2교육관 1층
유년부	오전10:30	교육관 307호
초등부	오전10:30	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10:30	교육관 507호
중등 1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중등 2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중등 3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고등부	오전 9:00	제2교육관 4층
대학부	토, 일 4:00	제2교육관 4층
청년1부	오전11:00	제2교육관 4층

구분	시간	강 소
정년 2부	오후12:30	교육관 501호
정년 1부	오후12:30	교육관 507호
정년 2부	오후12:30	교육관 407호
정년 3부	오후12:30	교육관 507호
소 말 부	오후12:15	갈 팀 리 1호
선승자경부	오후12:15	교육관 204, 205
사 부	오전11:00	북천관 1차1층
예하1부	오전9:00(오전 5부 100명)	교육관 207호
차기 부	오전 9:00 ~ 오전 7:00	교육관102호
새가부	오전 9:30	강원리 부, 매니니움
중형에어비점	주간교육	교육관107호
조간교육	주간교육	강원리 부지간
구내교육(선교부)	오전 11:00	아 면 록
수업시간 종료	오전 6:30	가 리 리 록

기도원 안내

집 회	시 간	차 량
화요일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 출발
금요일철야	오후 11:00	금요일집회 후 본당 앞 출발

■ 시무장로

- | | | | | |
|------------|------------|------------|------------|------------|
| 김진철
김진호 | 김주호 | 노경환 | 오국권 | 이영환
고국환 |
| 최태원
최태민 | 엄필석
유기환 | 강도용
구복환 | 이 훈
한영환 | 남순우
함도환 |
| 장운식
김운경 | 김영길
김도환 | 조인제
봉성환 | 김종구
홍기호 | 박기환
김기환 |
| 김진세
김정국 | 이창호
서복환 | 차진식
함도환 | 김담남
김도환 | 이종식
이갑환 |
| 이병욱
김병환 | 안득욱
김민환 | 임무천
최기홍 | 최기홍
김기환 | 이갑환
김기환 |
| 전종용
전종환 | 전종필
이정우 | 김근호
김근호 | 황영일
김기환 | |
| 한승근
신승환 | 신승환
김기환 | 김기환
최윤철 | 이영수
이영수 | |
| 안동현
김기환 | 황의민
김기환 | 김구형
최윤덕 | 이계인
최기환 | |
| 박덕양
서기환 | 이태식
봉성환 | 장태두
박홍규 | 권민욱
최기환 | |
| 조종환
이기환 | 배준식
김기환 | 김영당
이성호 | 박권철
최기환 | |
| 최기환
최기환 | 노경환
최기환 | 박철구
최기환 | 정경길
최기환 | 신상수
신상수 |
| 강철환
김기환 | 고계호
최기환 | 김영은
최기환 | | |

■ 위임목사 김성관

- | | | | | |
|------------------------|-------|-------|-------|-------|
| 부속사 | | | | |
| 이종대 | 정원인 | 김동하 | 서광진 | 박기인 |
| 5.27 | 5.27 | 5.27 | 5.27 | 5.27 |
| 이성기 | 류병희 | 이종철 | 김영훈 | 여국근 |
| 5.27 | 5.27 | 5.27 | 5.27 | 5.27 |
| 김교섭 | 이유린 | 임창덕 | 방종일 | 노광일 |
| 11.27 | 11.27 | 11.27 | 11.27 | 11.27 |
| 정진호 | 김영득 | 이성호 | 고광환 | 취권남 |
| 11.27 | 11.27 | 11.27 | 11.27 | 11.27 |
| 김익한 | 김정수 | 장 훈 | 임현덕 | 이희식 |
| 11.27 | 11.27 | 11.27 | 11.27 | 11.27 |
| 최종철 | 하우준 | 안천원 | 이태복 | 장승진 |
| 11.27 | 11.27 | 11.27 | 11.27 | 11.27 |
| 양재용 | 이진진 | 조규호 | 최성규 | 이제영 |
| 11.27 | 11.27 | 11.27 | 11.27 | 11.27 |
| ■ 남한선사 이병희 (11.28) | | | | |
| ■ 여전도사 | | | | |
| 정원희 | 신동주 | 윤윤진 | 한영준 | 김연식 |
| 5.27 | 5.27 | 5.27 | 12.27 | 11.27 |
| 홍순애 | 이승우 | 김갑자 | 안태순 | 최진성 |
| 11.27 | 11.27 | 11.27 | 6.27 | 11.27 |
| 조옥자 | 강기범 | 김경진 | 장배구 | 최복실 |
| 7.27 | 11.27 | 11.27 | 2.27 | 11.27 |
| 전은희 | 김영준 | 김정자 | 이수경 | |
| 11.27 | 1.27 | 11.27 | 19.27 | |
| ■ 천영감동 강구인 ■ 전임지휘자 서준선 | | | | |
| ■ 전임동참자 김주현 ■ 전(전)상교사 | | | | |
| ■ 해병교과사 하효석 (10.28) | | | | |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III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 clock Worship Service and Soli Loko.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 clock Worship Service.